

지역 소식 통

정읍시, 고병원성 AI
원천 차단 집중 방역 돌입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읍시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지역 내 유입 차단에 나섰다.

시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한 달간 집중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군산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아 국내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총 34건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도내 발생 건수는 10건(김제 4건, 부안 5건, 군산 1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토종닭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4곳과 관련 차량에 대한 시료 채취와 정밀 검사를 2월 1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률이 높은 산란계·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2주간 집중 소독 주간(3일~16일)을 운영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두성D&C 등 고향
사랑기부금 기부 잇따라

부안군은 11일 2025년 부안읍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회 행사에서 오아세에어 전주 효자점 최유리 부원장(주)두성D&C 황은호 대표가 각각 부안군에 고향 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유리 부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부를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날 황은호 대표를 대신해 행사장을 다녀와 심금녀 회장과 최유리 부원장을 대신해 오빠인 최태열씨가 기탁식에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황은호 대표와 최유리 부원장의 기부는 지역 사회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사례”라며 “기부금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소중히 활용될 계획”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고부봉기 131주년 기념행사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평면 · 고부 일원서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 개최

131년 전, 평등한 세상을 꿈꾸던 농민들의 외침이 정읍에서 다시 살아난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자인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131주년을 맞아 오는 2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평면과 고부 일원에서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기념사업회(이사장 이희정)가 주관해 옛 고부군 지역인 이평 · 고부 · 덕전 · 영원 · 소성 · 정우면 주민들이 주축이 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1부 행사에서는 1894년 1월, 동학농민혁명의 서막을 알렸던 고부봉기 재



현행사가 진행된다. 당시 고부군수 조병갑의 가혹한 학정에 맞서 전봉준 장군과 함께 농민들이 최초로 혁명을 모의했던 이평면 예동마을에서부터 말목장터 갈나무까지 농민군 진군 행렬이 펼쳐진다. 이어 말목장터에서 당시의 격문을 낭독하며 혁명의 결의를 되새긴다.

2부 행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고부

농민봉기 재현행사 기념식이 진행, 동학농민혁명의 이야기를 서사 형식으로 풀어낸 동학창극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또한 액운을 물리치고 소원을 비는 소원기원 액운점화식과 함께 동학 4대 장군(전봉준 · 손화중 · 김개남 · 최경신)의 참배 부어도 이어진다.

3부 행사에서는 고부 관아(현 고부초등학교) 점령 재현을 통해 당시 농민들이 부정부패의 상징이었던 조병갑을 몰아내고 제폭구민(除暴救民,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보국안민(輔國安民,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의 깃발 아래 평등한 세상을 염원했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택과 분양계약 체결... 고창신활력산업단지 ‘활력’

분양계약금 3억5400만원 납부

고창군은 (주)지택이 지난 8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9일)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입주부지 분양계약금 3억 5400만원 정도를 납부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력반도체 소재 등을 생산하는 (주)지택은 2024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와 3차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번 분양계약을 통해 투자이행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주)지택은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력반도체 웨이퍼 소재 등을 생산하며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이다. (주)지택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지에 미분양부지 3만8010㎡(1만1800평)에 올해 상반기부터 210억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주)지택의 제품은 일본기업에서 품질 테스트 중이다. 향후 일본, 중국, 인도 등 전력반도체 생산국가로 수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력반도체 시장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이밖에 에너지저장장치 소재 기업인 (주)손오공머티리얼즈는 오는 5월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9만1841.8㎡(2만

9711평)에 1630억원을 투자해 160여명의 고용과 연간 2만5000톤의 탄산디옥사산을 계획하고 있다.

전기 ·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대경에이티(주)’는 8월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고창신활력산업단지 1만2716㎡(3846평)에 35억원 상당을 투자해 자동차 및 가전용 전기 · 전자부품, 첨단 스마트폰실용 기자재를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소유권이전에 이어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관영 도지사, 고창군 농업인단체와 온정 차담회 가져

고창군 농기센터서 열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현장 찾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0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지

역농업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고창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도 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과 함께 고창



군의 특화 품목인 벼, 고추, 복분자 등 재배기술 교육이 열리고 있다.

농촌지도자 고창군연합회(회장 김춘옥)를 비롯한 고창군 학습단체와 주요 연합회 · 연구회 등 12개 농업인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농업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2026 전북 하계 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고창 농업인과 함께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고창 농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더 나은 전북과 농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방자치대상 혁신정책 ‘대상’

이학수 정읍시장, 정읍형 ‘민생경제 살리기’ 정치권 · 지자체 주목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혁신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뛰어난 성과와 정책을 펼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한다.

이 시장은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예산 절감을 통한 민생기정읍형 민생회복 지원 정책을 집중 추진하며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해 주목받았다. 특히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 효율화 △외부 감사 도입을 통한 사전심의 강화 △공법 변경 · 자재 재활용 · 관행사업 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 등의 혁신적 조치를 시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민 쌀값 하락 보전 지원 △육아수당 지원 △소상공인 안정 지원금 지급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을 실현하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내수 침체와 소비 약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의 과감한 선택과 변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방법을 찾았다”며 “사업에 꼭 필요한 비용 외의 예산은 시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기본에 충실한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착한소비촉진 ‘민생안정 특별대책’ 나서

고창군이 전 행정력이 총동원된 지역경기 부양 민생안정 특별대책에 나선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부양책 마련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 3대 프로젝트 범국민운동’을 시작했다.

‘민생안정 3대 프로젝트’는 △지역 내 소비 촉진 유도 △행사 및 사업의 신속 추진을 통한 경기 부양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1단계는 읍면을 포함한 군청 전 부서 추진, 2단계는 공공과 유관기관 사회단체까지 동참하는 범군민 소비촉진운동으로 확대 · 추진된다.

고창사랑상품권 활성화를 비롯해 구내시장 대신 관내 식당 이용하기, 관내 소매업체 활용 등 고창산 상품 사주기 등이 진행된다.

행사와 사업의 신속 추진을 통한 경기 부양책으로 시행된다. 회식이나 물품 구입 등 선(先)결제 적극 시행, 관공사 신속 발주, 각종 행사 · 축제를 앞당겨서 추진하기로 했다.

숙박 · 음식점 등 어려운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고창관광이나 사업을 앞장겨 시행하고, 소규모 지역축제와 이벤트를 열어 고창에서 가족과 지인, 친지모임 등을 갖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56세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시행

부안군은 올해부터 56세(1969년생)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는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에 의한 간질환으로 예방백신은 없으나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고 방치 시 간경변 및 간암 등 중증질환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C형간염 항체 검사는 선별검사로써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일지

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56세(1969년생) 국가검진 수검자 중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병 · 의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진찰료와 확진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단 (상당)중환자실에서 확진 검사를 받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